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교재 변형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덴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B]<‘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 — 못 개가 짓도다, 나의 아
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로 가
자, 침실로!

낯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욱 —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
는 내 마음의 촉(燭)불을 봐라.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알푸른 연
기로 꺼지려는도다.>

[C]<‘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메가 도깨비처
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 —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
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에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으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 가엸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
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 — 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
과 몸이 타려는도다.>

[D]<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가
자, 곁올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 내 침실이 부활(復活)
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얹는 꿈, 사람이 안고
궁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E]<‘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찾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
여, 너를 부른다.>

- 이상화, 나의 침실로

(나)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앞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명령형의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④ 시선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2. (가)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A]: ‘먼동’이 트기 전의 시간과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 연결됨으로써, 마돈나와의 만남에 대해 여유를 가지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는군.
- ② [B]: ‘첫닭’과 ‘못 개’의 시각적 심상과 ‘내 귀가 듣는 발자국’의 환청을 결합하여, 마돈나와의 만남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 말라 버린 듯한 ‘가슴의 샘’과 타려는 듯한 ‘마음과 목’을 결합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으로 인해 점차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있는 화자의 마음 상태를 제시하고 있군.
- ④ [D]: ‘세월 모르는’과 ‘아름답고 오랜’을 결합하여, 순수하고 아름다운 ‘침실’의 공간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⑤ [E]: 흐려지는 ‘별들의 웃음’과 ‘어둔 밤물결’을 결합하여, 화자의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을 환기하고 있군.

3. (나)의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공포를 유발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이다.
- ② ㉠은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이고, ㉡은 ㉠에게 위로해주는 존재이다.
- ③ ㉠은 화자가 위로를 보내는 대상이고, ㉡은 ㉠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은 화자에게 실망감을 갖게 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존재이다.
- ⑤ ㉠은 화자와 대조되는 존재이고, ㉡은 ㉠에게 두려움을 환기하게 하는 존재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시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공간의 특성을 함께 제시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특성을 그려 내거나, 화자의 독특한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가)에서는 어두운 밤의 현실과 대비되는 ‘침실’을 상징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인 ‘침실’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다양한 공간으로 변주되면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물의 욕망을 암시한다. 이 공간을 통해 화자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 한다. (나)에서는 ‘하늘 아래’나 ‘벌판’이 지닌 ‘뿌리 깊음’을 시적 공간의 특성으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바라는 세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다.

- ① (가)에서 ‘침실’을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 와야 할 곳으로 그려 낸 것에서, ‘침실’을 세속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침실’을 ‘늪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에 있는 공간으로 파악한 것에서, 침실에 도달하면 늪우침과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는 화자의 두려움을 알 수 있군.
- ③ (가)에서 ‘침실’을 ‘부활의 동굴’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마돈나와 함께 밀폐된 공간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고 새롭게 부활하고자 하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하늘 아래’와 ‘물 고이’는 곳은 고통의 공간으로 화자는 이곳을 벗어나 평화로운 세계에 도달하기를 지향하고 있군.
- ⑤ (나)에서 ‘뿌리 깊은 벌판’은 화자가 구원자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설정한 곳으로 화자는 스스로 맞서기보다는 구원자를 통해 고통을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군.

복합 변형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덴지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 — 못 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 침실로 가자, 침실로!

밝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욱 —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마음의 촛(燭)불을 봐라.

양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알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메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 —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에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으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

리를 내 귀가 들음은…….

내 몸에 피란 피 — ㉤ 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몸이 타려는도다.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가자, 꼬 올려 가지 말고!

㉥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궁그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 물결도 찾아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 이상화, 나의 침실로

(나)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A]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B]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단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깜깜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㉔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대상을 부르는 말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 ② (나)는 설의적 어미를 반복하여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청유형의 어미를 통해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시상의 전환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2. <보기>와 관련하여 ㉔~㉖를 이해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감상적 낭만주의는 미(美)를 이상적인 가치로 삼는 낭만주의에 바탕을 두면서도 현실에서 미의 추구가 불가능하다는 데서 비롯되는 심미적 태도를 말한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자아의 감정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며 현실을 벗어난 미지의 세계를 동경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절망적 상황에서 실현될 수 없는 낭만의 세계를 추구하였고, 이는 퇴폐적, 유풜적, 허무주의적 경향을 동반하였다.

- ① ㉔는 현실을 벗어난 공간에서 낭만적이고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㉕에서 화자가 자아의 세계에서 지나치게 몰입하면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 ③ ㉖에서 이상적 가치를 간절하게 동경하면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없음을 느끼는 절망적 심정을 느낄 수 있다.
- ④ ㉕에서 화자는 '마돈나'로 상징되는 이상적 가치가 실현되면 일제 강점하의 절망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㉖는 현실에서 벗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낭만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3. (나)에서 [A]와 가장 유사한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 ① 오, 유쾌한 새 손(客)이여
- ②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 ③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④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4. (나)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은: 화자는 특정 청자를 설정하여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
- ② 미류: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독자들에게 자신이 터득한 삶의 태도를 전한다고 볼 수도 있어.
- ③ 경철: 화자는 고통을 이겨 내기 위한 조건으로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 ④ 영민: 화자는 인생에는 영원한 슬픔은 없으며 반드시 희망의 시간이 온다는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 ⑤ 윤지: 화자는 고통을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고통을 함께 이겨 낼 존재가 있음을 말하는 것 같아.

5. 다음 중 시어의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㉑ ② ㉒ ③ ㉓ ④ ㉔ ⑤ ㉕

6.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징적인 시어를 통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청유형 어미의 사용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③ 반어의 표현 기교를 활용하여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 ④ 시구와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인 표현을 통하여 고통에 맞서는 화자의 각오를 들어내고 있다.

7. (나)와 <보기>를 연결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이육사, '절정'

- ① 두 시의 화자가 처한 현실은 부정적이다.
- ② 장소의 변화를 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장소가 형상화되고 있다.
- ④ 점층적인 표현을 통하여 시적 정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⑤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시어를 통해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강조된다.

8. (가)의 화자와 <보기>의 화자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 와 대면(對面)하게 될지니.
하여 '나' 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존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① (가) : 나는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② (나) : 당신은 너무 나약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여 자기 세계에만 몰두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대결해야 합니다.
- ③ (가) : 나는 나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부활과 재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 ④ (나) : 자신의 세계를 냉철히 바라보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대결을 한다면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 ⑤ (가) : 그렇군요. 나 역시 환상의 세계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나)에서 찾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 속에는 삶에 대한 작가의 성찰이 들어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바람직한 삶은 어떤 것인가, 바람직한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 문학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성찰의 범위는 실로 다양하다.

- 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에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작가의 성찰이 드러난다.
- ② ‘꽃은 피거니’에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긍정이 드러난다.
- ③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에는 삶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움과 절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④ ‘지는 해가 문제라’에서는 인간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⑤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에서는 희망과 긍정의 시간이 온다는 삶에 대한 낙관적인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정답 및 해설

교재 변형 문제

1. <답> ②

(가)는 ‘마돈나’, ‘침실’ 등, (나)는 개울, 등불 등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① 명령형은 (가)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현실을 풍자하지는 않는다.
- ④ 시선의 이동은 둘 다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가)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2. <답> ④

‘세월 모르는’과 ‘아름답고 오랜’은 모두 순수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지닌 것으로 ‘침실’을 수식하여 ‘침실’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① [A]: 화자는 마돈나와의 만남에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급해하고 있다.
- ② [B]: ‘첫닭’과 ‘못 개’는 시각적 심상이 아니라 청각적 심상이다.
- ③ [C]: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고 절망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 ⑤ [E]: 화자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돈나를 만날 수 있는 밤이 지나가는 것을 초조해하고 있다.

3. <답> ③

㉠은 고통을 다니고 상처를 입는 대상으로 화자가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하는 대상이다. ㉡은 고통에 괴로워하는 ㉠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동반자를 뜻한다.

4. <답> ③

‘침실’을 ‘부활의 공간’으로 빗댄 것으로 보아 화자는 마돈나와 함께 평안과 안식, 삶의 활력을 되찾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① 침실은 세속적 공간이 아닌 초월적 공간이다.
- ② 화자는 ‘침실’에 도달하면 뉘우침과 두려움을 벗어나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에서 ‘하늘 아래’와 ‘물 고이’는 곳은 고통의 공간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삶을 영위하며 맞서 싸울 수 있는 곳이다.
- ⑤ (나)에서 화자는 스스로 고통에 맞서고 이를 통해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복합 변형문제

1. <답> ⑤

(가)와 (나) 모두 시상의 전환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① (가)는 ‘마돈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 못 가랴, ~문제랴’의 설의적 어미를 반복하여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먼동이 트기 전, 밝음,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나)는 ‘넉넉히 흔들리거니, 등불은 켜지듯’ 등에서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2. <답> ④

화자는 ‘마돈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면 일제 강점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는지는 시에서 확인할 수 없다.

3. <답> ⑤

[A]에는 대구법이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대구법이 나타나는 것은 ⑤이다.

- ① 슬픔, 기쁨, 감동 등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인 영탄법이 나타나고 있다.
- ② 표현하는 대상과 관계 있는 사물이나 특징, 또는 부분으로써 그 대상을 빗대는 방법인 대유법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뺨’은 ‘먹는 것’ 전체를 빗대고 있다.
- ③ ‘내 누님같이 생긴 꽃’에서 직유법이, ‘-꽃이여’에서 영탄법이 나타난다.
- ④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정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거두는 표현 방법인 반어법이 나타난다.

4. <답> ③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마주하다 보면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에서 알 수 있다.
- ⑤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에서 알 수 있다.

5. <답> ②

㉠, ㉡, ㉢, ㉣은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은 화자의 열망을 말하는 것이지 화자가 긍정적으로 보는 대상으로 보긴 어렵다.

6. <답> ③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다. 반어는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의 의도와 반대되는 말이

나 표현을 하는 것으로, 이 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① ‘상한 갈래, 부평초’ 등의 시어는 상처와 고통의 상태를 ‘새순, 꽃’ 등은 생명력을 회복함을 상징하고 있다.

② ‘~자’의 반복을 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④ ‘이 세상 어디에나~’ 등의 시구의 반복을 통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⑤ ‘~랴’의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암담한 상황도 문제가 없다는 화자의 다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러난다.

⑤ 작가는 희망과 긍정의 시간이 온다는 낙관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7. <답> ⑤

<보기>는 이육사의 절정으로 가혹한 현실을 초극하려는 의지, 극한 상황에서의 초월적 인식이 드러나는 의지적인 시이다. (나)에는 ‘새순, 꽃’등의 시어가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지만, <보기>의 시에 유일하게 나타난 긍정적 대상인 ‘강철로 된 무지개’는 이질적인 시어의 조합을 통하여 상황을 초월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생명을 상징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① ‘고통, 고원’등의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② ③ (나)는 고통과 설움의 땅에서 ‘뿌리 깊은 벌판’으로, [보기]는 ‘서릿발 칼날진 그 위’로 장소의 변화를 주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이 시의 화자는 ‘고통이 끝이 있음을’, [보기]의 화자는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로 인식하게 된다.

④ (나)에는 ‘고통에게로 가자, 살 맞대고 가자’로 고통을 대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보기]에는 ‘북방, 고원, 칼날 위’로 장서의 극한성이 점층적으로 드러난다.

8. <답> ⑤

(가)의 화자는 환상의 세계에서 이상적인 존재, 절대적 아름다움인 ‘마돈나’를 간절히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9. <답> ③

(나)에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삶에는 ‘반드시’ 고통과 절망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넉넉히’, ‘충분히’와 같은 시어는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하는 것이 삶에 대한 자세라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② 힘든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꽃이 피듯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

④ ‘지는 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에는 힘든 환경과 조건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